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5

◆

은성에게는 너무나 피곤한 하루였다. 대통령, 야당 대표, 전경련 대표, 참모총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네 사람과 은성의 1대1 접견이 연달아 진행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DR. NEX 군단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 클론과 소울라이딩을 위한 칩이 심어진 사람들을 해킹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통령의 질문.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고요."

야당 대표의 질문.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전경련 대표의 질문.

"단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참모총장의 질문.

"저도 정확히 DR. NEX 군단이 뭘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킹이 가능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은성의 대답.

"그럼 국가가 어떻게 단장님을 믿고 클론 의무화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입장.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전경련 대표의 입장.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참모총장의 입장.

"저희 오리엔티스가 착용하는 해킹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급하겠습니다."
"그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해킹 방지 기능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럼 혹시…."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가 그걸 역이용해서 국민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질문.

"우리가 야당 모르게… 국민들의 생각을 좀 건드리는 게 혹시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여당 모르게 말입니다…."

야당 대표의 질문.

"저희가 회사에서 직원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전경련 대표의 질문.

"오리엔티스가 멀티 조종을 하는 것처럼, 군대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참모총장의 질문.

"네, 가능합니다."

은성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역시 단장님! 좋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의 새로운 입장.

"최고입니다, 단장님! 대신에 이걸, 야당에게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당의 견제는 제가 최대한 막아드릴 테니까요."

야당 대표의 새로운 입장.

"이건 노조에게는 비밀로… 저희 전경련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단장님 필요로 하시는 재원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전경련 대표의 새로운 입장.

"아! 단장님, 그럼 이건 역시 사병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고, 다른 나라에도 일단은 기밀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군이 강하게 클 필요가 있습니다."

참모총장의 새로운 입장.

은성에게는 너무나 피곤한 하루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네 사람과 은성의 1대1 접견이 연달아 진행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수확은 달콤했다.

◆

DR. NEX의 아지트에서는 동녘, 서창, 코카, 사마엘, 대원들이 둥글게 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캣츠아이만으로는 방어가 안 된다면서요."

서창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캣츠아이 하나로는 커버리지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야. 유일한 방법이라면 서현이 제어하는 양자융합 컴퓨터를 폭파하고 ZZBB51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머 유닛 ZZBB51. 오리엔티스가 가지고 있는 메카닉 병기의 이름이 나오자 동녘이 황당하단 표정을 지었다.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다 문득 서현이 떠오른 동녘이 다시 질문했다.

"컴퓨터를 폭파하면 서현은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서창 대신 코카가 대답했다.

"그건 지후가 알 거예요. 서현을 빼낼 방법이 있을지는… 저흰 모릅니다."

지후가 안다는 것은 동녘이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본인들도 알 수 없다는 뜻이었다.

"동녘, 지후의 기억이 더 살아난 건 없나?"
"아직은 없어요. 서현과 싱크 되었을 때 기억 말고는 더 살아나질 않아요."
"ZZBB52에 대한 기억은?"
"ZZBB52요? ZZBB51이 아니라요?"

지후의 얼굴을 한 동녘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묻자, 서창은 답답하고 난감하단 표정으로 대답했다.

"ZZBB51은 저들에게서 내려와 불시착한 기체를 지후 자네가 탈취해 실험했던 것이고, 그걸 토대로 만든 것이 ZZBB52라는 새 기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들었다."
"그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서창은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할아버지는 대체 뭘 해왔던 거예요? 오리엔티스의 클론들을 납치하고, 그래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카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동녘, 너와 같이 자유의지가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있었어. 여러 실험도 필요했지. 하지만 마지막 코드는 지후가 알고 있기에, 네가 지후로서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물론 서창 대장은 네가 지후로서 깨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지만…."
"그럼 여기 모두는 영생은 포기한 건가요? 저는 클론이 되었지만 자유의지도 살아있고 하니 별 문제 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창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동녘. 너는 스스로를 지후라고 할 수 있나? 넌 동녘이 아닌가? 쌍둥이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같은 개체가 아닌 것처럼, 동녘과 지후는 분명히 다른 개체다. 기억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애초에 생명이 발현할 때의 의식은 별개이기 때문에 완벽한 클론은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창이 말을 끝내려는 때, 사마엘이 총을 꺼내며 끼어들었다. 서창이 사마엘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서창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총 끝의 총구였다. 기지의 문이 열리면서 실험실의 클론과 사람 들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어 서창을 향해 무기를 겨누었다.

"저희는 대장을 위해 일해왔지만 영생을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고귀하신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지후 단장이 기술을 갖고 온 이상, 저희는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DR. NEX 단장… 물러나십시오."

서창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군."

서창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상벨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침입을 알리는 비상벨이었다. 사마엘은 계획한 대로 게이트를 오픈해, 무장한 오리엔티스 군단이 기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코카가 싸우기 위한 자세를 취하자, 서창이 코카에게 명령했다.

"코카, 넌 동녘을 데리고 ZZBB52로 가라."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죠."
"어차피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일 거다. 얼른 떠나라."

서창은 품 속에 든 자폭 장치를 코카에게 슬쩍 보였다. 코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창 대신 동녘을 엄호하는 것으로 자세를 바꾸었다.

"할아버지! 같이 피하셔야죠!"
"동녘아, 넌 지후가 아니라 동녘이다. 그리고 난 동녘이 너를 사랑한다."

서창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반란군과 오리엔티스가 일제히 서창을 향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총탄 하나가 서창을 관통했다.

"할아버지!"

울부짖는 동녘에게 서창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했다.

"빨리 가라 동녘, 넌 세상을 구해야 한다…."

서창은 품 속에 있던 자폭 스위치의 버튼을 누른 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기지 자폭 카운트 다운이 스피커를 통해 울리기 시작했다.

서창을 처리한다는 일단의 목적을 완수한 오리엔티스 군단은 흩어져 기지를 빠져나갔다.

동녘이 서창의 몸을 거두기 위해 달려나가려 하자, 코카가 동녘을 가로막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코카는 동녘의 팔을 붙잡고 있는 힘껏 달려야만 했다.

코카와 동녘이 탈출구를 통해 기지를 빠져나오는 순간, 카운트 다운이 0에 도달하며 기지가 폭발했다.

◆

동녘을 태운 코카의 바이크가 도착한 곳은 퍼스트 임팩트 이후 폐허가 된 구 도심이었다. 허물어져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건물 앞에 멈춘 코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녘을 바라보았다. 서창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움직일 의지를 잃어버린 동녘이 바이크 위에 앉아 있었다.

코카는 동녘을 끌고 허물어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보안 코드를 누르자, 엘리베이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엘리베이터는 지구 중심까지 들어갈 기세로 한없이 오랫동안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동녘은 정신을 되찾기 위해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코카가 앞장 섰다. 동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코카를 따라가는 것 뿐이었다. 기다란 통로 끝에 이어진 것은, 다름아닌 격납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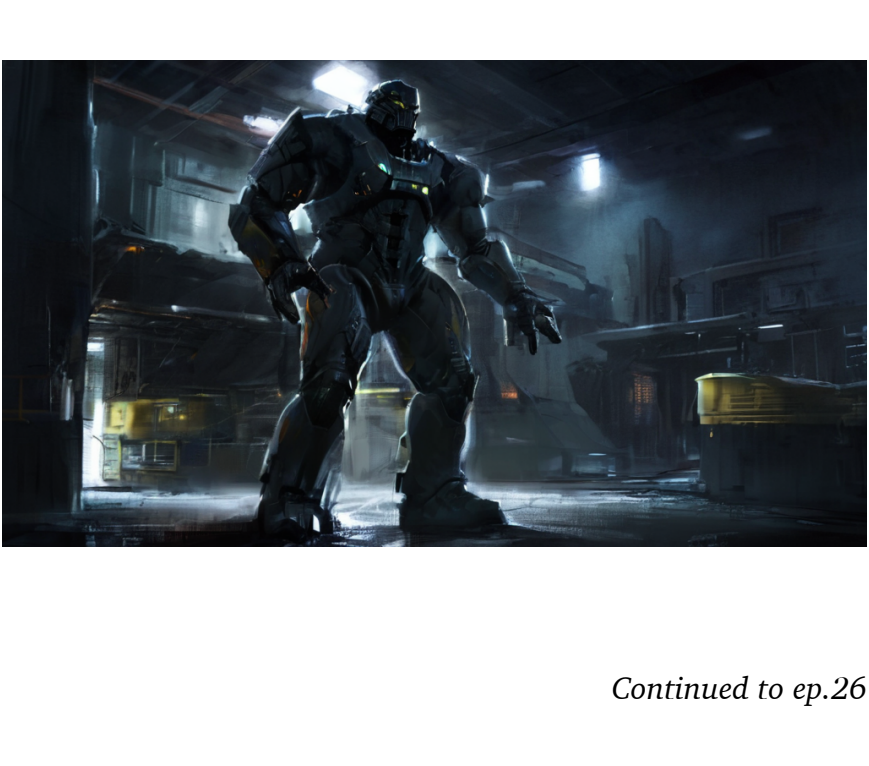
격납고 앞에 도착한 코카가 조명을 켜기 위한 조명 스위치를 올렸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인지 바로 조명이 들어오진 않았다.

"이 안에 든 게 뭔지 알겠어?"

동녘은 격납고 안에 든 존재를 올려다 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머 유닛 한 대가 격납고 안에 서 있었다.

"이게 ZZBB52?

그 순간, 조명이 들어오면서 ZZBB52의 진정한 모습이 동녘의 두 눈에 들어왔다. ZZBB51을 닮았지만, 훨씬 날렵하고 진보된 형상의 아머 유닛이었다.



Continued to ep.26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